

미국 농업부, 2001~03년도 정책평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농업은 미국 경제의 초석이며, 농업이 강해져야만 미국도 강해질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2001년 이래로 부시 대통령과 베네만 농업부 장관은 농민과 축산농가, 농촌공동체, 환경, 소비자권의 보장 등을 위해 미국 식품 및 농업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협력해 왔다.

1. 고용창출 및 농업경제 강화가 목표

미국 농업부문은 농가 순현금 수입(net cash farm income) 전망치가 2002년도에 비해 33% 증가한 650억 달러로 현재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농업 전문가들 역시 2003년(회계연도 기준)에 562억 달러, 2004년도 595억 달러에 육박하는 낙관적인 전망치를 발표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내세운 고용창출과 경제개발을 목표로 한 정책수행의 일환으로써 미국 농업부의 농촌개발 프로그램은 지난 3년 동안 미국 농가에 5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하는데 기여했다.

미국 농업부는 약 25억 달러의 자금을 대출, 보조금, 기술적 보조 등의 방식으로 농업 관련 사업개발을 위하여 투자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경제개발공조체제를 구축하고 강화시키는 작업을 위하여 정부보조 대상 개발단지(Empowerment Zone, EZ)와 사업단지(Enterprise Communities, ECs) 프로그램에 1억 8,300 달러가 투입되었다. 이번의 투자 외에 지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EZ/ECs 프로그램과 다른 지원단체에 투자되는 여타의 연방기

금 4억 2,200만 달러와 비연방기금 7억 3,900만 달러의 미 농업부 기금이 투입된다. 저개발 농촌 지역의 경제적·지역적 개발 기회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20개 공공기관과 협정을 체결하여 선진 정보기술과 경영기법 훈련을 통한 사업경영 개발을 꾀하고 있다.

주력 투자사업은 재개발 역량을 고취시키기 위한 부가가치 사업의 개발이다. 교육, 보건, 원거리 통신망 구축, 관개수로사업, 시민 편의시설 등과 같이 지역 기반사업 육성을 위하여 기부나 대부 형식으로 130억 달러 이상의 지원을 받아왔다. 102억 달러 이상은 주택보급을 위하여 쓰였으며, 이중 상당한 액수가 대통령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소외계층의 내집 마련을 위하여 지출되어 2010년까지 550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2. 산림후생 개선

수년간 산림후생(forest health)에 대한 무관심과 국가 산림후생 개선계획 부재로 인하여 산림지대는 유해한 연료의 방치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대규모 산불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졌다. 가족과 지역공동체 그리고 미국의 자연자원을 반복되는 대규모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2002년 부시 대통령은 강력한 건강한 산림 계획안을 발의하여 산림건강을 개선하고 치명적인 산불의 위험을 감소시키려 하였다. 2003년 12월 부시 대통령은 산림건강복구법(Healthy Forests Restoration Act, HFRA)에 서명했다. 농림부 장관 베네만과 내무부 장관 노턴은 법안의 시행을 원활히 하여 시의 적절한 의사판단으로 더 높은 효율과 더 좋은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방사업과 유해한 연료의 감소를 위한 기금을 당초 계획보다 두 배나 많이 모금할 수 있었다. 결국 2003년의 유해한 연료적재량이 2000년 보다 절반 이상 감소한 260만 에이커에 이르렀다.

3. 2002년 농업법의 시행과 재해지원

2002년 농업법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인과 목축업자, 가공업자에게 보조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 후 단 5개월 만에 미 농업부는 주요 상품과 농업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가공업자에게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2003년 농업인과 목축업자는 농업보조 프로그램으로 118억 달러 이상을 지급 받았다. 게다가 31억 달러는 2003년 농산물지원법(Healthy Forests Restoration Act)을 통하여 해당 가공업자에게 지급되고 있었다. 또한 부시 행정부는 효과적인 가뭄대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1억 달러 이상을 가축 보상 프로그램으로 지출하여 다른 가공업자와는 달리 위험관리 수단이 없는 가축 가공업자들을 지원하였다.

농업부는 3만 이상의 농업인과 목축업자들에게 농업 대출 프로그램을 통하여 71억 달러 이상을 직접대출이나 융자보증기금으로 출연하였다. 연방 작물보험(crop insurance) 또한 확대되어 현재 수익감소와 생산에 대한 보험으로 400억 달러를 보장한다. 신속한 재해선언과 환경보전 프로그램(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을 개시함으로써 가뭄으로 인한 피해 농가에 긴급한 목초나 건초의 공급과 그 외의 신속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생산보험의 개선과 효과적인 운영으로 인하여 해당 농가의 약 80%가 가입하는 등 최대 수준의 가입률을 기록했고, 2002년 가뭄과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 손실에 대해 약 41억 달러를 보상받았다. 2003년도 작물보험으로 지급된 액수는 총 30-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4. 에너지 수요에 대응한 재생연료 및 생물에너지 개선

부시 행정부의 주요 선행 공약 중 하나는 대통령의 국가 에너지 계획이

다. 이것의 기본 계획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재생 연료와 생물 에너지 개발이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농업 유관 에너지원 개발을 위한 부가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에너지 법안을 가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2002년 농업법의 에너지 관련 조항을 보면 선진 유망 기업의 생물학 가공품과 생물에너지, 즉 에탄올, 바이오디젤, 그 이외 농산물이나 부산물로 생산되는 깨끗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한 상품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농업부는 5,750만 달러를 부가가치 농산물 시장 개발 보조금으로 43개 주, 291명에게 수여했으며, 여기에는 22개 주에서의 생물에너지 개발과 판로개척을 위해 지원한 1,0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부시 행정부는 2,1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보조 프로그램에 의해 지급했다. 이러한 기금은 에너지 비용을 감소시키고 농업 관련 사업과 농업인, 축산업자의 이윤의 기회를 높일 것이다. 미 농업부는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을 위한 유인으로 7,170만 달러를 기계 설비 재정비를 위한 대출금으로 지급했다. 더욱이 부시 대통령의 국가 에너지 전략을 바탕으로 미 농업부는 4,500만 달러를 가능성 연구와 생물학 기반의 건축, 사업성 있는 생물 에너지 연구를 위해 투자해왔다.

5. 보존기금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한 자금지원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보존 제안서 입안을 위한 노력과 의회에 상정된 보존 제안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하여 미 농업부는 자연 자원 보존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2002년 농업법은 농업인 자신의 생산지의 토양, 수질, 공기 보존과 보호를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둔 기금을 전무후무하게 80%나 증가시킨 가장 중요한 투자를 포함하고 있다. 2002년 농업법은 10년간 171억 달러 증가된 금액을 지원한다. 보존을 위한 부시 행정부의 기본 투자와 더불어 이 기금으로 미

농업부는 기술지원 제공자와 협력하여 보존을 위한 수단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농업부는 다수의 주들과 협력하여 국가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강화계획(Conservation Reserve Enhancement Program, CREP)를 마련하고 강화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몇몇의 연방 부서와의 협력체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으로 오레곤의 클라마스강 유역과 캘리포니아의 수질 보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 계획은 수립된 상태다. 클라마스강유역계획은 가뭄의 피해를 감소시키고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사업계획,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 지역의 수질 자원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장기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6. 기아 퇴치를 위한 과학기술 활성화

미국 농업부는 2003년에 미국국제개발청(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과 함께 제1차 장관회의와 농업과학기술 엑스포를 개최하여 세계의 기아를 물리치고 생산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해결방안을 발표했다. 119명의 농업, 자연자원, 과학기술, 상업, 무역, 경제, 보건교육 분야의 장관급 임원들을 포함한 1,000여명이 이 역사적인 회의에 참석했다. 정보를 이용하여 농업인을 지원하고, 자료조사와 지역 학회 지원을 통하여 지식기반을 확충하고, 정부, 학계, 기업 간의 공조체계 확립하자는 의견이 이 회의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한 결론이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기아와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해결방안 모색의 중요성이 이 회의에서 재확인되었다.

7. 농산물무역 확대

미국 농민과 목축업자들을 위한 교역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부시 대통령의 지속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미 농업부는 새로운 무역협정 협상을 지원하고, 농산물 무역 분쟁을 해결하여 미국 식료품과 농산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타의 행정 부서들과 협력해 왔다. 베네만 농업부 장관과 로버트 쥘릭 무역 대표부는 새로운 시장 개척과 기존 시장 유지를 위해 무역협상의 DDA 협상에서 강경하고 공격적인 무역 아젠다를 선언했다.

미국 식료품과 농산물의 시장기회를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미국 정부는 모로코, 호주, 중미, 남아프리카 등의 19개국과 자유무역 협정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칠레와의 협상은 이미 체결되었다. 또한 미국의 자유무역지구에서의 서반구 지역의 무역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미 농업부는 11억 달러 이상의 타격을 주고 있는 러시아의 대미 가금류 수입 금지 조치와 중국의 대두 수입 제한 등과 같은 수많은 무역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기존의 시장을 지키려는 노력을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미 농업부는 2003년 시장접근 프로그램 하의 기금으로 1억 1,000달러를 65개 무역 기구에 할당하여 미국 상품의 시장 개척과 식료품 및 농산물 수출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8. 식량원조계획 강화

지난 2년 동안 미국의 식량원조 규모는 전 세계 원조 총계의 약 60%에 달한다. 2001년 미국의 식량원조 프로그램은 신뢰성과 효율성, 경영방법을 개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식량원조 기부 기금은 대부분 직접적인 식량 지원 프로그램에 최우선적으로 지급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식량 배급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신뢰성을 쌓을 수 있었다. 정부는 맥거버너 돌(McGovern-Dole) 국제아동영양과 교육프로그램(International Child Nutrition and Education program)에 기금을 마련하여 전 세계 아동의 교육과 영양공급의 책무를 다

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이 프로그램으로 2004년 미 농업부는 15만 톤의 상품을 기부하여 영양가 있는 학교 급식을 21개국 약 230만 아동들에게 공급할 것이다.

9. 미국의 국토방위

2001년 9월 11일 이후로 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식량과 농촌 기반을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미 농업부는 농촌 국경 감시단의 수를 50% 증가시켜 생물학적 테러에 대비하고, 공격적인 새로운 안전지침을 제시하고, 대규모 작업장 개선에 박차를 가하며, 실제적 조사연구를 증가시키고 효과적인 훈련과 교육을 강화했다. 게다가 농업부는 국립작물실험네트워크와 국립동물검역네트워크를 발족했다. 이것은 19개 지부를 두고 농민과 지역 전문가, 이해당사자 그룹, 지역 공무원, 대학 실험 실습실 등과 연결되어 외국에서 전이된 동물의 질병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적하게 될 것이다. 2003년도에 미 농업부는 수의병리학센터(Plum Island Animal Disease Center)와 국경 감시단의 기능을 국토방위청으로 이관하였다. 이와 같은 개편으로 국경 관리기구와의 더 원활한 협조체제가 기대된다.

10. 건강한 미국 건설

미 대통령이 주창한 건강한 미국 건설 운동(Healthier US Initiative)은 모든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고안된 활동이다. 농업부는 개정된 공식 어린이 영양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강한 학교생활 환경을 독려하고 있다. 농업부는 최신 과학적 지식과 소비자의 이해를 토대로 하여 식품 가이드 피라미드를 재평가하고 있다. 농업부는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와 연계하여 과학 자문단을 구성하고 식

생활 지침서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미국인의 식생활과 신체적 활동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면, 과일소비 촉진운동인 전국적인 ‘5-A-Day’ 운동과 협력하여 과일·채소의 소비를 증가시키자는 합의를 도출해 냈고, 교육부와 DHHS와 공조체제를 이루어 학교차원의 노력을 강화하여 어린이나 청소년이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똑똑하게 먹고 신나게 놀기 캠페인(the Eat Smart, Play Hard Campaign)을 강화하여 소아비만 퇴치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 캠페인은 농업부의 식생활 건강지수(Interactive Healthy Eating Index)와 함께 미국인의 식습관 평가 능력을 강화시켜 주었고, 제1회 전국 영양학 교육 회의를 개최하여 프로그램을 초월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더욱이 베네딕트 농업부 장관이 농업부의 6가지 영양소 연구 센터에서 비만과 국민 보건 위기 증가 대처에 우선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주도하고 있다. 농업부는 정부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영양학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12. 식품과 영양안전성 연계망 구축

미국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식품과 영양 안전성 연계망을 강화하는 것은 부시행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였다. 이를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전국에 걸쳐 매년 410억 달러 이상을 아동과 저소득 계층에게 지급하고 있다. 푸드스텝 프로그램을 재정비하여 64억 달러를 앞으로 10년에 걸친 기금으로 조성하여 영양보조를 위한 프로그램에 지급하기로 확정하였다. 미국에서 최소 5년 이상 체류한 적법한 이민자들도 식권을 지급받을 자격이 되도록 개선한 것도 그 내용에 포함된다. 식권의 배급방식도 많이 개선되어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지급률이 약 95%에 달함으로써 부당하게 지급받는 사례가 줄어들었다. 여성과 유아 및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미 농업부가 확보한 기금은 매우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고, 결식아동을 위한 식품배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 영양 프로그램을

재인가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와 반하여, 프로그램의 통합을 추진하기도 한다. 베네만 농업부 장관은 '1단계 식권'을 도입하였는데 이것은 잠재적 참여자의 자격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매달의 수혜금을 수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검토 제도이다. 농업부 역시 웹 기반의 시스템을 가동하여 각 주들이 미 농업부의 재고상품을 파악하여 주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복의식으로 무장된 행정부의 지원을 받은 농업부는 식권 지급의 정확성에 있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02년 183억 달러 가치의 식권이 91.74%의 정확도로 발행되었다. 게다가 농업부는 오류가 평균치 이상인 경우 부여한 벌금으로 각 주로부터 걷어 들인 1,400만 달러로 기금을 보충할 수 있었다. 이것은 푸드스텝 프로그램에서 모금한 전체금액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13. 지역의 종교단체 활용

부시 대통령이 제시한 종교에 근거하는 지역사회 이니셔티브에 대응해서, 농업부는 이 제도의 도입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검토하고,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의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USDA의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2002년 이후 USDA는 협력기회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지역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최우선 순위 가운데 하나는 하계 식품지원프로그램(Summer Food Service Program), 아동 및 성인보장 식품프로그램(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 등 다양한 아동 영양지원 프로그램에 지역 종교단체의 참여를 지역 종교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잉여 무지방 건조우유를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가정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14. 안전한 식품공급 기반구축

식품으로 인한 질병으로부터 미국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정부는 식품안전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막대한 예산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6,500여개에 달하는 육류, 가금육, 계란 등을 생산하는 공장에 공중보건 검사관을 추가 배치하고, 식품안전체계를 강화했다. 농업부는 과학에 기반을 둔 식품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어 병원균 퇴치를 위한 강력한 새로운 조치를 도입했고, 소비자들이 안전한 식품관리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빈민구제활동을 전개했다. 미세한 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식품 검사관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실험실을 추가 배정했고, 가공업자, 유통업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안내서를 배포했다. 뿐만 아니라 농업부는 육류 및 가금육 제품의 미생물 오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이를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장기적이고, 과학에 기반을 둔 대책을 마련했다.

15. 생명공학기술 규제체계 개선

베네만 농업부 장관은 미국의 생명공학기술 관리의 능률화를 목표로 생명공학관리청(Biotechnology Regulatory Services, BRS)이라 불리는 기구를 신설하는 등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 기구를 통해서 생명공학기술 관리에 대한 정보나 문의사항은 간소화된 관리체계를 통해서 신속하게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생명공학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식품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강력한 법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될 것이다. 또한 농업부는 안전성에 관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생명공학기술에 의해서 파생된 특정 식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16. 시민권리 보호 강화

베네만 농업부 장관은 농업부가 모든 소비자나 피고용인에 대한 균등한 대우를 보장하는데 우선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장관은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 온 공약으로써 시민권리를 보호하고, 민원을 대폭 축소시키고, 농민보호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포괄적 대책을 개발해 왔다.

정부(Bush Administration)는 시민권리 보장을 담당하는 차관보를 임명하여, 새로운 시민권리 보호소를 설치하여, 시민권리 소송을 해결하도록 촉구했다. 2003년 농업부는 아시아와 태평양 섬나라 출신의 노동자에 의해서 제기된 차별조치를 해결했다. 또한 빈민구제활동, 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소수 단체와 협력방안을 구축했다.

17. 농업 평가

장기적이고 낙관적인 농정의 제시와 함께 미국 정부는 ‘식량 및 농정: 새로운 시대의 대비(Food and Agricultural Policy: Taking Stock for the New Century)’라는 제목의 포괄적 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농민들과 축산업자들이 전 세계적인, 기술 진보된, 다양화된,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농업이 직면하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동시에 성장과 개발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농가와 식품체계의 인프라를 현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농업과 식량체계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가이드를 제안하고 있다.

18.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 강화

정부는 모든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방정부의 연구결과와 자원을 사용했다. 가령, 최근 농업부와 미항공국(NASA)은 전략연구계획과 주요 분야의 협력방안을 마련하였다. 두 기관 사이에 양해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자료 구축, 정밀농업(precision agriculture), 교육 및 복지활동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 새로운 지도력과 서비스 촉구

연방정부가 일반인과 젊은이 사이의 봉사활동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베네만 농업부 장관은 ‘USDA, 내일의 지도자(USDA’s Leaders of Tomorrow)’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새로운 농업지도자 상을 만들기 위한 이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적극 홍보하면서, 공공 봉사활동, 식량부문, 농업교육 분야의 참여를 권장했다.

자료 : USDA, 보도자료
(김상현 ksh3615@krei.re.kr 02-3299-4369 농정연구센터)